

# 자기 소개

저의 원래 전공인 회계를 따라 일을 하던 중 저는 한번도 제 적성과 저에게 맞는 직업이란 무엇인지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주 7일 중 5일을 일터에서, 나의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는, 내 인생으로 봤을 때 무시하지 못할 많은 시간을 일터에 쏟는 아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때부터 나는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내 시간을 대부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가치가 있는 일이란 무엇인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제가 선택한 직업은 개발자였습니다. 개발자를 선택한 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장 가능성이 무수히 많다.

개발자라는 직업의 특징을 보는 순간 흡사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꾸준히 오래 공부를 해야한다는 점이 마치 운동을 하면서 내 몸의 근육을 단련시키듯 개발의 역량을 키워나아가는 것이구나 느꼈습니다.

2. 그러므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미끼가 무한으로 제공된다.

일의 재미를 느끼는 원동력은 바로 성취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면서 이 시간을 그저 버티는 시간이 아닌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일에 대한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발전했다는 성취감을 느낌으로서 나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3. 공유와 협력이 곧 나의 발전이다.

사람은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는 결국 함께 살아가야하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좋은 코드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발전에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노출시킴으로서 나의 발전에 대한 생각거리가 많을 거라는 점이 저에게 큰 매력이었습니다.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바의 정석'의 저자 남궁성 선생님이 국비학원 비트캠프에 계시다는 카페의 정보를 찾아보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는 내내 같은 반에 있던 동료들이 모두 열심히 하는 분위기여서 저도 같이 힘을 받아 열심히

했습니다. 수료 후에는 기초토대가 잘 닦아놓아야 그 위에 기술도 차곡차곡 안정적으로 쌓아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웹, 네트워크, 운영체제 관련 책을 읽는 등의 CS의 지식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대체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실무에서 만날 선배 개발자님에게도 배우고 개인적으로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기술의 깊이를 다져놓는다면 불가능한 꿈은 아닐거라 믿습니다.